

보도 일시	2021. 12. 16.(목)09:00	배포 일시	2021. 12. 16.(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소정 (044-203-3031)
		담당자	사무관 채수일 (044-203-2971)

미래를 바꾸고 있는 우리의 일상 ‘한국판뉴딜’

-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국립중앙박물관 등 3개 사례 선정 -

-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우리 문화유산 -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콘텐츠체험관’
- 지구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나섰다 - 대구팔달초등학교
- 에너지 대전환 수소 산업 생태계를 이끈다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국립중앙박물관(디지털뉴딜/실감콘텐츠산업 육성)과 대구팔달초등학교(그린뉴딜/탄소중립 환경교육),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H2KOREA, 그린뉴딜/수소 에너지)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

가상공간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체험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콘텐츠체험관(디지털실감영상관)’에서는 관람객이 시공간을 초월해 직접 우리 전통 그림 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수장고·보존과학실 등 박물관 내 제한구역 안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고 직접 가 볼 수 없는 북한 지역 고구려 벽화 무덤 안에 걸어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한 높고 멀리 있어 가까이 보기 어려웠던 높이 13.5m의 고려 탑 ‘국보 경천사 십층석탑’ 조각에 담긴 이야기가 빛의 향연과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이는 고해상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홀로그램·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 등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첨단디지털 기술과 우리 문화유산을 결합한 실감콘텐츠 덕분이다.

실감콘텐츠는 첨단기술을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에 적용한 미래형콘텐츠로서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정부는 그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0일 국내 최초로 ‘실감콘텐츠체험관’을 개관했다. 체험관은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청주·광주·대구 등 4개 박물관 6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경주박물관 등 6개관, 2021년 전주박물관 등 4개관을 추가로 조성했다. 문화유산에 첨단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관람객이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지식 없이도 관람객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즐거운 전시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를 담당한 김동필 부사장(엘솔루)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현한 것은 아직 불모지인 분야에서 실감콘텐츠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한 한국판뉴딜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연주 방송작가도 “실감콘텐츠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 익숙한 청년층(MZ)세대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라며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초등학생들의 도전, ‘팔달 그린 환경교육’

기후변화·자연재해 등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구팔달초등학교의 ‘팔달 그린(Green) 환경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도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구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지구 기온상승을 1.5℃ 이내로 막자’라는 구호 아래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저탄소 생활 습관을 기르고 ‘기후행동 1.5℃ 응용프로그램’(기후 활동 실천 일기 쓰기·퀴즈·행사 정보&도움말 등)을 통해 일상에서 언제든지 환경에 관해 이야기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구팔달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환경적 소양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환경교육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진짜 환경 살리기 도전’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심사에 참여한 김준혁 교수(한신대)는 “미래 시민사회의 주인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꼽았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서정 심사위원(제주 국제고/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도 “환경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큰 쟁점이 됐던 ‘1.5℃ 지키기’를 환경교육 특색 과제로 선정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대전환, 수소 산업 생태계 이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

2017년 4월에 출범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H2KOREA)’는 민관협업체로서 수소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됐고, 수소경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국민 수용성 제고, 국제협력, 수소 산업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수소 전기차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 충전소 설치 자격요건 완화와 수소 전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에이치투코리아’는 앞으로도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산업·기반시설 등을 새롭게 재편하는 한편, 수소가 현재의 탄소 에너지를 대체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산업계·학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박미경 대표(맘카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석노기 장인(영주대장간 대장장이)은 “수소 산업 기반시설과 보급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서경중 감독(이날치밴드 한국관광공사 광고 제작)도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로 ‘한국판뉴딜’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최하지 않으며, 감사패는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는 총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박민우 여행작가, 김주대 시인, 조규리 대표(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이윤근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박지영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오상봉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센터), 이은상 장학사(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6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붙임 1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대상자 소개(요약)



국립중앙박물관

회 사 명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문화유산과 첨단디지털 기술 융합-실감 콘텐츠산업 육성



'한국판뉴딜'에는 '콘텐츠뉴딜'이 있다

오감 자극 첨단기술과 우리 문화유산 결합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에 '옛것이 있는 장소'로만 느껴졌던 박물관이 달라지고 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고해상도 영상과 홀로그램·외벽영상(미디어 파사드) 등 이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첨단기술과 우리의 문화유산을 결합해 관람객을 역사의 현장으로 실감 나게 끌어들이는 '실감콘텐츠체험관'이 그것. 실감콘텐츠는 첨단기술과 우리의 문화유산 또는 관광자원을 결합한 미래형 콘텐츠로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 전략'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5월 20일 국내 최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콘텐츠체험관(디지털실감영상관)'이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초대형 스크린에 '정선의 금강산도' '조선 왕실 의궤 행렬도' 등을 재현해 관람객이 역사와 전설·신화 속 세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VR(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는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수장고·보존과학실 등 박물관 내 제한구역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에 있는 고구려 벽화무덤을 4면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재현해 실제 가볼 수 없는 유적을 여행하는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고, 무엇보다, 높이 13.5m의 '국보 경천사 십층 석탑'에 새겨진 조각 속 이야기들이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 기법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나 남녀노소 누구나 그 의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전시·관람의 새로운 지평 열어

2019년 첫 삼을 뜬 체험관 조성 사업은 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청주·광주·대구 등 4개 관 6개 소, 2020년에 경주 등에 6개 관, 2021년에는 전주 등에 4개 관을 추가로 조성했다. 문화유산에 첨단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는 관람객이 가서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게 하고, 가상공간을 현실의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콘텐츠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 주요 박물관이 디지털박물관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에 박물관 전시·관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중앙박물관을 비롯해 13개 소속 박물관에서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 사업은 국민 체감 가능한 정책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2020년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구팔달초등학교

회 사 명	대구팔달초등학교
한국판뉴딜 연관성	그린뉴딜-탄소중립 환경교육-지구를 살리는 도전 '기후행동! 1.5°C 지키기'



저탄소 생활 습관 실천 프로그램 다양

‘기후행동! 1.5°C’

대구팔달초등학교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비,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특별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팔달 그린(Green) 환경교육이 그것으로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고고 챌린지’ ‘환경사랑 문예대회’ ‘환경 계기 교육’ ‘환경교육(ESD) 동아리’ ‘꿈 잡고(Job Go)!, 그린 잡고(Job Go)! 체험’ ‘NIE 에너지 일기 쓰기’ ‘교내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 ‘외부기관과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과 현장 체험학습’ 등 저탄소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 이 중 ‘꿈 Job Go! 그린 Job Go! 직업체험’ 팔달 환경·진로 멘토링은 1~6학년 전교생이 전문직업인과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해보는 자리. 원예치료사·마술사·목공예전문가·드론 전문가·스마트팜 전문가·업사이클 디자이너·파티쉐·플로리스트·가족공예 전문가·유튜브 크리에이터·푸드아트 스타일리스트 등 체험형 진로멘토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팔달초등학교는 또한 학생들이 ‘기후행동 1.5°C 앱’에 꾸준히 참여하도록 유도, 기후활동 실천 일기·퀴즈·이벤트 정보&꿀팁 등을 통해 환경에 관한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학습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기후행동 실천으로 1.5°C는 지키고!’라는 과제를 선정해 전 학교 구성원이 모두 이를 꾸준히 실천하도록 했다.

지구를 살리는, 멈추지 않는 도전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환경부와 교육부가 주관한 ‘기후행동 1.5°C 스쿨챌린지 시즌2’ 공모에 전교생이 참여, 대상과 함께 미세먼지 대응 및 환경교육을 위한 학교 숲을 지원받는 성과도 거뒀다. ‘기후행동 1.5°C 스쿨챌린지 시즌2’는 ‘지구의 기온상승을 1.5°C 이내로 막자’라며 환경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미래세대의 기후행동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 기후행동 1.5°C 앱을 통해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학생과 학교를 선정해 시상한다.

기후변화·자연재해 등 다양한 환경 위기에 대비한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다. 그런 면에서 대구팔달초등학교의 팔달 그린(Green) 환경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도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따라서 대구팔달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환경적 소양을 갖추고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교육을 통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짙환경 챌린지’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

회 사 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
한국판뉴딜 연관성	그린뉴딜-수소 인프라 기반 구축-수소 산업 생태계 조기 형성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추 민관협의체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는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 수소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그린뉴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민간협의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수소에너지의 국가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확산 로드맵 수립’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육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한국판 그린뉴딜 성공 위해 역량 극대화

한국판뉴딜에 있어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수소경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산업경쟁력에 필수요소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2KOREA는 출범 이후 수소경제 정책이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한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으로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산업 진흥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수립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수소경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자체의 수소경제 프로젝트 지원 △수소 관련 규제 개선 지원 △수소전문기업육성 △글로벌 수소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그것. H2KOREA는 또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수소경제 사회에서 한국이 수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산업·인프라 등을 새롭게 재편해 수소가 현재의 탄소에너지를 대체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산업계·학계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혁신데스크를 통해 지정된 전문기업 29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추진과 신규 수소전문기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며, 금융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금융지원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